

지역 소식통

고창군 외식업주, 맛있는 음식 친절 퍼포먼스 진행

고창군 외식업 대표들이 '위생적인 음식제공과 친절 서비스를 실현하자'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해 화제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문화의전당에서 일반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음식점 대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앞서 외식업 영업주들은 2023년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들이 고창을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생적인 음식 제공과 친절 서비스를 실현하자는 피켓 퍼포먼스로 결의를 다졌다

(사)한국의식업중앙회전북지회 고창군지부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영업신고 개시일 1년 이상된 영업자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중독 예방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의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외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면서도 식품접객업 영업자들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부안군, 주요 관광김장명소 이벤트 진행

부안군은 단풍철과 김장철을 맞아 11월 한달간 부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모바일 스탬프 부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스탬프 부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안내 주요 관광지를 소개해 관광객 방문을 유도하고 포인트를 모은 관광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엔 진행되는 이벤트는 기존 포인트 달성시 지급하는 선물을 대체로 주는 이벤트와 함께 김장철을 맞아 곱소젓갈 단지 코스(곱소젓갈발효식품센터, 곱소구시장, 곱소항, 곱소염전)를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도 선물을 지급하는 2가지 방식의 이벤트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제값 받고 보람 찾도록”

고창군, 농업 현안 의견수렴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



심덕섭 고창군수가 "지역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심덕섭 고창군수와 지역 농업인단체 대표단이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농업과 농촌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농자재 비·비료·면세유 등의 인상에 따른 추가 지원과 쌀값 폭락에 대한 생산비 보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덕섭 군수는 농업인단체 대표들의

의견에 충분한 공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약속했다

앞서 고창군은 농기계 면세유나 비료 인상분을 지원해 농작물 생산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내년에도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전략작물 직불금, 원예작물 지원사업 보조비를 상향지원 등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다른 분야보다 농업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예산과 법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창군은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고창방문의 해 운영에 따른 농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비료관리법 개정 시행... 비료 품질관리 강화

정읍시, 비료 살포 시 7일 전까지 사용면적 · 적정공급량 신고해야

정읍시가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비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비료의 연간 최대 사용량을 제한한다

시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 에 비포장된 비료를 살포시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사전에 신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지난 7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비포장 비료를 살포할 때 적정공급량의 규정이 없어 수백톤에 달하는 매립 수준의 살포로 농촌지역의 환경피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면적 대비 적정공급량을 법률로 정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적정공급량은 연간 1,000㎡당 3,750kg이며, 비포장 비료 살포 시에는 7일 전까지 (휴일 미포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20조, 제28조, 제30조에 의거해 위

반 횡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등록 취소 및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관련해 시는 비료의 품질 및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참여 비료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작물 성장에 필요한 비료가 적정량을 넘어 매립 수준의 살포가 되면 농촌지역 환경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비료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안정적인 혈액 수급 위한 헌혈 추진협의회 가져

정읍시는 지역 내 민·관·군 헌혈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안정적 혈액 확보를 위해 8일 헌혈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었다

헌혈추진협의회는 해마다 반복되는 혈액 부족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헌혈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헌혈 수급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다

이날 회의에는 정읍시와 정읍시의회, 전북혈액원, 정읍아르병원, 정읍교육청, 정읍경찰서,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언론사 등 8개 기관에서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혈액 부족 위기 극복을 위한 각 기관단체별로 헌혈 장려 방안과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또, 지역사회 혈액 수급 상황을 공유하고 지난 6월에 열린 상반기 헌혈추진협의회 건의사항에 대한 성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이상 공무원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단체 헌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10월 말까지 2,867명의 정읍시민이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했다

또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개인 헌혈 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읍헌혈의 공간(구 시기동주민센터 2층)을 마련했다

헌혈자에게는 혈액형과 B형간염, C형간염, 매독검사, 간기능검사 등 혈액검사와 함께 문화상품권(10,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헌혈이라는 작지만 큰 실천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중한 나눔이 된다"며 "매주 수요일 정읍헌혈의 공간에서 진행되는 헌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정읍시, “감염병 꿈작 마”

7~8일 감염병 모니터 요원 역량 강화 교육... 대응체계 '강화'

정읍시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사전 예방과 확산 방지 등 지역사회 감시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감염병 대응 모니터 요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감염병 대응 모니터 요원은 요양병원, 정신 의료시설, 장애인시설 등 114개소 감염 취약 시설에서 감염병의심 환자 발견과 각종 감염성 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해 보건소에 즉시 통보,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코로나19 감염관리, 시설 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 코호트격리 시 조치사항, 감시체계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해 흥역 등 해외 유입 감염병 사전 예방과 차단을 위한 예방수칙준수를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울러, 집단감염 위험으로부터 적시에 효율적인 대처를 통해 감염병 발생 억제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방역키트와 소독제, 가운 등 방역 소독 물품을 지급했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환자 파악과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최일선에 있는 감염병 모니터 요원 교육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정읍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달에는 요양병원 4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별 시나리오를 배부하고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또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전북 감염병관리지원단과 연계해 현장 역학조사와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조선 최고의 길지’ 변산면

11일 제32차 조선심승지 읍면장협의회 참석

부안군 변산면(면장 허진상)은 오는 11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32차 조선심승지 읍면장협의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조선심승지는 조선시대 최대의 예언서 '정감록'에 언급된 3재(전쟁, 흉년, 전염병)가 없는 청정하고 안전한 지역 10곳을 말한다

조선심승지는 부안군 변산면, 무주군 무풍면, 남원시 운봉읍, 합천군 가야면, 영주시 풍기읍, 봉화군 춘양면, 상주시 화북면, 예천군 용문면, 공주시 유유읍, 영월군 영월읍 등이다

왜구의 잦은 노략질로 인해 해안지역에는 마땅한 피신처가 없지만 변

산은 바다와 들만, 깊은 계곡이 사람을 살리는 땅이었기에 심승지에 속할 수 있었다

이날 협의회는 10개 시군 읍면장 및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해 각 읍면별 발전 및 향후 추진계획, 읍면별 홍보,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 및 심승지 읍면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공동 발전방안에 대한 합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허진상 변산면장은 "부안군과 변산면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심승지 읍면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